

한국의 국가안보와 통일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흔히 한반도를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냉전지대라고 한다. 실제로 세계 4대 강국이 복합적 갈등구조를 이루고 있는 동북아 한 가운데에 마치 화약고 같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다. 지난 수십 년 북한은 다양한 도발로 이 화약고에 끊임없이 불을 붙이려 해왔다. 바로 무력적화통일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동안 한반도는 '평화'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전쟁 못지않게 긴장도가 높은 가짜 '평화'가 유지되어 왔다. 그것도 한

미군사동맹의 억제력과 한국의 극한적 인내로 겨우 겨우 유지되어 온 평화였다.

그런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까지 개발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 북한은 도대체 왜 핵을 개발했을까? 여러 가지 추론이 있지만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때 김정일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이 '김정일의 꿈인 통일의 원

동력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듯이, 핵 개발의 이유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해서'라는 분석이 가장 정확해 보인다. 1974년, 등장하면서부터 경제고 뒤고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오로지 '무력적화통일'에 올인을 하던 김정일이 남쪽에서 '한강의 기적',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는 것까지 보면서 선택한 특단의 대책이 핵 개발이다. 유사시 핵으로 미국의 증원을 막아, 미국의 개입으로 실패했던 6.25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집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핵은 이른바 절대무기, 정치무기가 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이 실전에 배치되고, 혹시 핵 국가로 세계의 인정까지 받게 된다면 한반도 '남과 북의 군사력 균형은 결정적으로 붕괴되고, 한국은 점차 한반도 적화통일의 길로 끌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혹시 평가가 유지된다고 해도 '중속적 노예적 평화'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완벽한 대처 방법도 찾기 어렵다. 사드를 배치한다고 완벽할 수도 없고 '미국의 핵우산'도 다른 나라의 핵이라면 몰라도 우리에게 대한 북한 핵위협에 대처하기에는 구멍이 너무 많다.

예컨대 북한이 만약 핵으로 협박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다양한 재래식 도발을 감행하면 이제는 우리가 응징보복을 하기 어렵게 된다. 응징보복이 어렵다는 것은 역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만약 북한이 그런 다양한 도발들을, 그것도 복합적으로 계속하면 -광우병 사건에도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가 뿌리째 흔들렸던 곳이 이곳 서울인데- 우리가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심지어 한미연합사가 건재해도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북한 핵미사일은 어떻게 하든 폐기 시켜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990년대 후반 북한은 2억\$, 많아봐야 3억\$이면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무려 300만 가까운 북한 주민을 참혹하게 굶겨 죽이면서도 1발에 3억\$-5억\$ 든다는 핵을 만들었다. 그것도 온 세계가 둘러서서 '너 그것 만들면 혼내 줄 거야.' 경고하고 막는 가운데 절치부심(切齒腐心) 만들어서 이제 거의 완성단계에 들었다. 더욱이 오늘 북한에 있어서의 핵은 북한 체제 정통성의 방증이자 권위의 상징이다. 쉽게 폐기하겠는가?

뿐만 아니라 북한은 김정은은 체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결코 핵을 폐기해선 안 된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파탄상태에 있는 북한 경제부터 살려내야 하는데, 그러자면 불합리한 북한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사회를 개방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사회를 개방하면 체제 개혁은 물론 곧바로 체제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 개방은 더 더욱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적화통일'을 이루는 외에는 항구적 체제 위기를 벗어날 길이 아예 없는 것이다. 그러니 '적화통일의 원동력'인 핵을 어떻게 폐기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핵 실험 금지 조약(CTBT) 등이 증명하듯이 오늘 북한의 핵개발은 일종의 국제적 금기사항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이 시대 국제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인 것이다. 더욱이 북한은 일찍부터 전략적으로 제3세계 테러집단들을 지원해 왔고 특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등 여러 나라와는 핵·미사일 기술 협력을 해왔다.

북한 군사 전문가 브루스 백톨 교수는 "2012년 초부

터 2년에 걸쳐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화학무기 판매가 증가했고, 북한 군사 고문관들이 필요한 화학전 기술과 훈련을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북한은 대규모 민간인이 학살된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살포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뿐 아니라, 2016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시리아 평화회담에 참석한 반군 대표단 아사드 알주비(Asaad al-Zoubi) 단장은 "북한 병력이 시리아 정부군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금년 초에 하마스에 1500여기의 대전차미사일을 공급했고 지난 3월에는 수소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물질인 리튬-6를 해외에 판매하려 했다는 UN전문가의 보고서도 있었다.

그러니 만약 북한이 핵 국가가 되면, 오래지 않아 더욱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라는 화약고에 불을 붙이려 들 것이고 기회만 주어지면 국제 테러리스트 지원도 결코 자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당연히 사생결단(死生決斷) 핵을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고, 나아가 핵은 온 세계로, 결국은 국제 테러리스트들에게까지도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미사일 폐기를 위한 세계의 노력은 계속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아 보인다. 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일찍부터 이스라엘처럼 폭격을 하든지,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으면 '자칫 체제가 무너지겠구나' 겁이라도 나게 해야지 그 외에는 어떤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결정적 수단을 가진 중국이 '북한의 체제붕괴'만은 안 된다고 막아 나서고 뒷문까지 열어주고 있으니 어떻게 해결이 가능 하겠는가? 비슷한 이유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최근 트럼프 정부의 유례없는

강경책 역시 기대는 하지만 성공을 확신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체제붕괴 곧 '북한 레짐체인지'는 물론 최근 거론되는 이른바 '선제공격'도 그것만으로 완전한 해결 방법이 될지는 의문이다. 뒤를 이은 북한 체제가 핵을 반드시 폐기 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세계 많은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는 '한반도 자유통일, 그것만이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때마침 오늘 김정일의 통치체제도 얼핏 튼튼하고 확고한 것 같지만 실은 심한 골다공증 환자 같다고들 한다. 원래 어떤 통치체제도, 그 체제가 유지하려면 국민의 충성심, 효율적인 통치체제-관료조직, 군과 경찰 같은 체제수호의 힘 등 '체제유지의 기본기능요소'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데, 핵미사일과 특수전 부대 등 군부대 일부는 몰라도, 너무 오래 굶주린 국민의 충성심은 말라버린 지 오래고, 관료들은 지극히 부패한데다가 사기마저 저하되어 있다.

또 북한은 그 동안 강력한 정보통제로 주민의 눈과 귀를 막아 놓고 앞에서는 김일성의 카리스마로 끌고 나가면서, 군이나 사회안전부 같은 국가 폭력장치로 뒤에서 폭력으로 밀어 나가는 형태로 통치해 왔는데, 지금은 정보화 시대인데다가 김일성이 죽은지도 23년이 다 되어가고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되다보니 국가폭력장치의 칼날도 많이 무디어졌다고 한다. 결국 함부로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북한은 사실상 체제유지의 기본기능과 북한 나름의 통치 수단들이 모두 망가지고 있고 북한 김정은 체제가 어떤 한계점에 각일각 다가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

다. 그러므로 한반도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주변 각국의 협력이나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아파나시예프(Evgeny Afanasiev) 전 주한 러시아대사는 1999년 5월 국방대학교에서 시베리아 개발에의 한국의 기여를 강조하면서 '러시아는 한반도 자유통일을 통해서 얻을 것은 많지도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그런 차원에서의 관심은 동북부지방의 경제발전을 기대하는 중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자유통일이 동북아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상호 협력체제 형성의 초석이 되고 그것은 세계 평화와 경제 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오늘 북한이 어떤 체제인가? 핵무기를 갖고 있고, KAL기 폭파, 아웅산 폭파 심지어 금년 김정은의 배다른 형 김정남을 VX 독극물 암살하는 등 국가테러리즘의 전비(前非)도 있다. 2016년 7월 미 공화당이 "노예국가"라고 규정했을 만큼 참혹한 인권유린과 마약문제로 세계의 많은 의구심을 사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김정은은 공격적이고 예측불허인데다가 집권 5년 동안 당·정·군 고위 간부 140여 명 -특히 그의 고모부 장성택까지 포함해서 무려 340명을 처형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더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인권과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의 수호를 안보의 주제로 삼고 있는 21세기에 이런 체제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조금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은 물론 훨씬 더 치명적인 잠수함탄도미사일(SLBM)과 수소탄 개발도 계속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시간만 걸릴 뿐이지 모두 성공 가능하다. 2016년 한국 국방백서에서는 전략핵미사일을 전담

한국 국가안보의 핵심과제는
'한반도 자유통일'이다.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완전히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1만명의 '전략군' 체제도 편성되어 있다니 핵미사일 실전 활용을 위한 체제까지 갖추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오죽하면 2016년 5월 웬디 셔먼(Wendy R. Sherman)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워싱턴의 한 세미나에서 '북한은 지금도 핵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시간은 우리의 적'이라고까지 말했을까?

이렇게 보면, 오늘 한국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자유통일'이다. 이는 오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북한 핵미사일을 완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오랜 냉전시대를 종식시키고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상호 협력, 경제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시안인 것이다. 이 시점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각국 모두, 아니 온 세계가 다 함께 한반도 자유통일에 더욱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다.



글 | 김희상

(예)육군중장,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 서울대학교 외교학 학사, 펜실베이니아 슈펜스버그 대학교 대학원 공공행정학 석사 및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이며, 명지대, 성균관대 초빙교수 및 남북군사회담 한국대표단 차석대표를 역임하였다.